

Session 5 David: Walking with Confidence in God (1 Sam. 18) **제 5 장 다윗: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감 (삼상 18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Samuel 18 gives insight into David's heart in a season when his circumstances changed in dramatic ways. We see his confidence in God in times of unusual blessing as well as in adversity.

사무엘 상 18 장에서는 다윗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는 시즌에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역경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한 축복의 때 또한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B. David killed Goliath, saving the nation from a military disaster (1 Sam. 17). This thrust him into national prominence. David experienced favor with Saul's family, the staff of the royal court, the army, and the nation in general (18:5, 28-30). His life changed dramatically from the quiet life of a shepherd in Bethlehem to a high-ranking officer in the military serving in the king's court. He moved to Gibeath to live and serve in Saul's court, the governmental headquarters of Israel.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을 군사적인 위기로부터 구해냈고 (삼상 17 장), 이 일로 인해 그는 국가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다윗은 사울의 가족으로부터, 왕의 신하들로부터, 군대와 국가 전반으로부터 호의를 얻었다 (18:5, 28-30 절). 그의 삶은 베들레헴에서의 조용한 목자의 삶으로부터, 왕궁에서 섬기며 군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삶으로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기브아로 옮겨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곳인 사울의 궁정에서 섬겼다.

- C. David had favor with two of King Saul's six children: Saul's oldest son, Jonathan, the heir to the throne (18:1, 3) and his youngest daughter, Michal, whom David married, thus joining the royal family himself (18:20-27). Saul had four sons and two daughters (1 Chr. 8:33; 9:39; 1 Sam. 14:49).

다윗은 사울 왕의 여섯 자녀 중, 두 자녀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첫째는 왕위를 잇게 되는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이고 (18:1, 3), 둘째는 다윗이 결혼한 사울 왕의 막내 딸인 미갈이며, 이 결혼을 통해 다윗은 왕가에 속하게 되었다 (18:20-27). 사울에게는 네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대상 8:33; 9:39; 삼상 14:49).

- D. David experienced great favor until Saul reacted with anger to women singing of David's military victories (18:6-9). Then he lost his job in the royal court, and Saul sought to kill him (18:10-11).

다윗은 사울이 여인들이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를 노래함으로 분노하기 전까지는 사울로부터 많은 호의를 얻었다 (18:6-9). 그 이후 그는 왕궁에서 자리를 잃었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18:10-11).

- E. In this chapter we will see that David walked with a confidence in God while being tested with praise as well as great adversity. The trouble came to him as the result of the Lord allowing him to be trained to be a great king by using the deception and murderous rage of a demonized king—Saul.

이 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역경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으로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주님이 악한 왕인 사울이 속임과 살인적인 분노를 통해 그를 위대한 왕으로 훈련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시작되었다.

- F. **The Gibeah years** (1 Samuel 17-20; approximately 18-23 years old): David's identity was tested and strengthened by success and adversity at the same time. The question was, could David connect with God amidst many pressures in the same way he had in the security and solitude of Bethlehem?

기브아에서의 날들 (삼상 17-20 장; 대략 18-23 세의 나이): 다윗의 정체성은 성공과 역경을 동시에 받으며 시험되고 강건하게 되었다. 여기서의 질문은 이것이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베들레헴에서 홀로 안정되게 지낼 때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가?”

- G. This period lasted about 4-5 years. It was a time of much honor, uncertainty, and danger, ending with David being pursued as an outlaw and fugitive by 3,000 government-financed soldiers.

이 기간은 약 4-5 년간 지속되었다. 이 시간은 많은 명예를 얻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고, 이 시간의 마지막에 다윗은 3,000 명의 정부가 고용한 병사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 H. David grew up in the small rural town of Bethlehem before joining the royal court to be on the personal staff of the king. He joined the fast pace of the royal court that had many new people and agendas with changing experiences. David must have experienced some *culture shock* when he moved to Gibeah to live and work in Saul's royal court (18:2).

다윗은 왕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자로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도시에서 자라났다. 그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윗이 기브아에서 사울의 왕궁에서 일하게 되면서, 아마 그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됐을 것이다.

- I. In 1 Samuel 18-19, the Holy Spirit set David and Saul side-by-side to give us instruction, warning, and encouragement. Both were chosen for leadership and anointed by the Spirit. The same God with the same resources were available to both. With David there was a steady growth in grace, while with Saul there was a continual increase in compromise, oppression, and perversion. One life ended in victory, the other in tragedy. Saul began so well and could have been all that David was.

성령님께서 삼상 18-19 장에서 다윗과 사울을 나란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두 사람 모두 리더십으로 선택되었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 성장해나갔고, 반면 사울의 삶 안에는 타협과 어려움, 빼놓아짐이 계속적으로 증가해나갔다. 한 명의 삶은 승리로 끝났고, 또 한 명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다.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으며, 그는 다윗이 서나간 것처럼 서 나갈 수도 있었다.

- J. **The test:** Can David stay humble and grateful both in seasons of praise and mistreatment? Can he maintain a servant heart when exalted? Or be corrected or slandered without attacking in return? We will respond to praise in the same way that we respond to criticism and to promotion in the same way that we respond to unjust demotion. It is not one decision that shapes our destiny, but many.

시험: 다윗은 칭송을 받을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두 겸손하고 감사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높임을 받을 때도 종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이로부터 교정과 비방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비방에 넘어지는 자라면, 칭찬에도 넘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가 위치가 불의하게 낮아졌을 때에 넘어지는 자라면, 위치가 높아질 때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단 한번의 결정이 우리의 앞 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여러 번의 결정을 통해서이다.

II. DAVID'S SEASON OF PROMOTION IN GIBEAH (1 SAM. 18:1-5)

다윗이 기브아에서 높은 자리로 승격되다 (삼상 18:1-5)

A. Life in Saul's court and David's favor in the nation (18:1-5)

사울의 궁정에서의 삶, 그리고 다윗이 국가의 총애를 받음 (18:1-5)

¹Now when he [David] had finished speaking to Saul,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and Jonathan loved him as his own soul. ²Saul took him that day, and would not let him go home to his father's house anymore. ³Then Jonathan and David made a covenant, because he loved him as his own soul. ⁴And Jonathan took off the robe that was on him and gave it to David, with his armor, even to his sword and his bow and his belt. ⁵So David went out wherever Saul sent him, and behaved wisely. Saul set him over the men of war, and he was accepted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and also in the sight of Saul's servants... ¹⁶All Israel and Judah loved David... (1 Sam. 18:1-5, 16)

¹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²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³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⁵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 ¹⁶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삼상 18:1-5, 16)

B. Saul took David: David moved to Gibeah to serve in the king's court, the government headquarters.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함: 다윗은 기브아로 가서 통치의 중심지인 왕의 궁정에서 섬겼다.

C. Made a covenant: The covenant between Jonathan and David was expressed by Jonathan's gift of his robe and armor to David.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신의 겹옷과 군복을 다윗에게 주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표현했다.

D. Robe: Jonathan's robe spoke of his position of authority as heir to his father's throne. Jonathan gave David his princely robe that was reserved for the heir to the throne. Jonathan was, in essence, handing to David the right of succession to the throne because he understood that God had called David to be king. To take off his robe can also speak of Jonathan's commitment to not hide himself from David, but to be open, honest, and vulnerable to him without concealing his heart from him.

겉옷: 요나단의 겉옷은 아버지의 왕좌를 이어받을 그의 위치와 권세를 말해준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을 자에게 주어졌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는 그가 실제 다윗에게 왕좌를 이을 권리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숨기는 것이 없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그를 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 E. **Armor:** Jonathan's armor (his sword, bow, and belt) were his weapons of war. In other words, Jonathan was committing to fight David's battles even to death. I will fight for and stick with you. I will put my shield up for you and draw my sword to fight for you and never fight against you. At that time, giving armor was also way to make an alliance.

군복: 요나단의 군복(그의 무기, 활, 허리띠)은 그의 전쟁 장비들이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의 싸움에 있어 목숨을 바치겠다는 헌신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며, 당신과 함께 하겠다. 나는 방패를 들어 당신을 막아주며, 내 칼을 들어 당신을 위해 싸우며, 절대로 당신에게 맞서지 않겠다. 이 때에 군복을 주는 것은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 F. They were both committed to use their position, status, and resources to support each other. Jonathan was heir to the throne, one of the wealthiest and most powerful men in the nation. The most natural way for Jonathan to treat David would be as his rival to his position in the kingdom.

그들은 서로를 지지해주기 위해 자신의 위치와 모든 가진 것을 사용하기로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었다. 요나단은 왕위를 이을 자였고,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자 중에 하나였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관계는 사실 다윗이 나라 안에서 가진 위치 때문에 그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다.

- G. Their love had significant person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18:16, 22, 28; 20:17). They were both bound together by a mutual affection and loyalty in friendship and service in the kingdom.

그들 간의 사랑은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8:16, 22, 28; 20:17). 그들은 함께 나라를 섬기며 서로의 친구가 됨에 있어 상호간의 사랑과 충성으로 묶여 있었다.

- H. This depth of relationship is a precious and rare gift from God. Friendship is necessary for realizing who we are and for becoming who the Lord created us to be. Healthy kingdom relationships do not seek to restrict or control each other, but to free and enriched the other.

이 관계의 깊이는 귀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문 선물이기도 하다. 우정의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서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서로를 제한하거나 조종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자유로우며 서로를 복되게 한다.

- I. 1 Samuel 20 develops this relationship. David called Jonathan his brother when lamenting his death (2 Sam. 1:26).

삼상 20 장은 이 관계를 보여준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할 때 그를 자신의 형이라 불렀다 (삼하 1:26).

- J. The Lord went before David to prepare the way, establishing an ally in the right time and place. This was God’s provision for David to have a friend in the enemy’s household. In difficult times, the Lord often prepares an ally to show us kindness. David’s life was protected by this relationship.

주님은 다윗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셨으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에게 아군을 만들어주셨다. 이는 다윗이 적의 가정 내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주신 것이었다.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때, 주님은 종종 우리와 함께 하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다윗의 삶은 이 관계로 인해 보호를 받았다.

III. DAVID’S PROMOTION (I SAM. 18:5)

다윗이 승격됨 (삼상 18:5)

- A. Saul gave David a high-ranking position in the army (18:5). This position was an intervention of God’s favor to prepare David to be the great warrior king of Israel.

사울은 다윗에게 군대의 높은 자리를 부여했다 (18:5).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이자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분의 간섭하심이다.

⁵*So David went out wherever Saul sent him, and behaved wisely. And Saul set him over the men of war, and he was accepted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and also in the sight of Saul’s servants.* (1 Sam. 18:5)

⁵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삼상 18:5)

- B. *Went out:* David went on many expeditions and grew in military experience and prowess (18:5, 30).

가서: 다윗은 많은 원정을 나갔으며, 군사적인 경험과 용맹이 늘어갔다 (18:5, 30).

- C. *Behaved wisely:* David behaved wisely (18:5). Some Bible translations say, “*David prospered.*” In the Hebrew perspective acting wisely and prospering are nearly synonymous. He behaved wisely in context to his sudden national popularity. He did not use his position to manipulate people or situations. The people under him were not threatened because he continued in a posture of humility.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다 (18:5). 어떤 성경은 이를 “다윗은 번영했고”라고 번역했다 (NASB).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과 번영한다는 것은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갑작스럽게 얻게 된 국가적인 인기에도 지혜롭게 처신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나 상황을 조종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행동했기에,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받지 않았다.

IV. SAUL BECAME JEALOUS (I SAM. 18:6-16)

사울이 질투심에 빠짐 (삼상 18:6-16)

- A. When David returned from killing the Philistines, the women sang of his military success as their husbands, sons, and brothers returned safely from battle (18:5-6). Saul became angry, jealous, and suspicious about David. This was the turning point in David’s relationship with Saul.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들, 형제들이 전쟁에서 안전하게 돌아옴으로 인해 다윗의 승리를 노래했다 (18:5-6). 사울은 화가 났고 질투했으며 다윗을 의심했다. 이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when David was returning from the slaughter of the Philistine, that the women had come out of all the cities of Israel...to meet King Saul, with tambourines, with joy, and with musical instruments. ⁷So the women sang as they danced, and said: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ten thousands.” ⁸Then Saul was very angry, and the saying displeased him; and he said, “They have ascribed to David ten thousands, and to me they have ascribed only thousands. Now what more can he have but the kingdom?”” ⁹So Saul eyed David from that day forward.
(1 Sam. 18:6-9)

“...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⁷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⁸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⁹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삼상 18:6-9)

- B. **Very angry:** Saul interpreted the song in negative way. He was very angry saying, “They have ascribed to David ten thousands, and to me they have ascribed only thousands.

심히 노하여: 사울은 이 노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말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서, 나한테는 천천이라고 밖에 하지 않는구나.”

- C. **Jealous:** Saul was jealous of David in contrast to Jonathan’s affection and the people’s love for him. The seeds of jealousy in Saul’s soul ripened until he planned to murder David. The spirit of jealousy distorts our thinking. It can dominate our lives if we allow it to grow. The way to overcome this is by a ruthless honesty before God that confesses and repents of it.

질투: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그를 질투했다. 사울의 영혼 안의 질투심의 씨앗은 점점 익어가서 그는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했다. 질투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해버린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질투가 커지게 내버려두면, 이는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냄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 D. **Saul eyed David:** Saul watched David with a suspicious eye. Samuel had told Saul that he would be replaced. Saul had been looking for any who might be his successor. Saul connected the women’s song with Samuel’s prophecy of Saul’s “neighbor” to whom the Lord gave the kingdom (15:28).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봤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울은 자신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었다. 사울은 주님이 자신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사무엘이 예언을 여인들의 노래와 연결해서 생각했다 (15:28).

²⁸Samuel said to him [Saul], “The LORD has torn the kingdom of Israel from you today, and has given it to a neighbor of yours, who is better than you.” (1 Sam. 15:28)

²⁸ 사무엘이 그[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삼상 15:28)

- E. **What more could he have but the kingdom?** It dawned on Saul that David was the one whom God called to replace him (18:8). God set up this situation by sending Samuel to inform Saul that one day a man would be raised up to replace him. This created suspicion in Saul towards others.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려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8:8).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언젠가는 한 사람이 세워져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심으로, 이 상황을 만드셨다. 이 일은 사울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한 의심이 생기도록 했다.

V. SAUL ATTEMPTED TO KILL (I SAM. 18:10–12)

사울이 죽이려고 하다 (삼상 18:1-12)

- A. Saul was oppressed by a demonic spirit, resulting in his first act of violence to David (18:10-11). Saul's anger and jealousy opened the door for increased demonic activity in his mind and emotions. Giving way to jealousy gives Satan opportunity even in a believer's life (Eph. 4:26, 27).

사울은 악한 영에 눌려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된다 (18:10-11).

사울의 분노와 질투는 그의 마음과 감정 안에 더 큰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성도가 질투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사단이 성도의 삶 안에서 역사할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다 (엡 4:26, 27).

¹⁰*It happened on the next day that the distressing spirit from God came upon Saul...David played music with his hand...there was a spear in Saul's hand. ¹¹Saul cast the spear, for he said, "I will pin David to the wall!" But David escaped his presence twice. (1 Sam. 18:10-11)*

¹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¹¹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삼상 18:10-11)

- B. **Saul cast a spear:** This was his first overt act of violence. David did not pick up the spear and throw it back at Saul physically or verbally, but quietly left. Attempted murder was a sure sign that the darkness in Saul's life was setting in. On a later occasion Saul again threw a spear at David (19:10).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이는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공개적인 폭력이었다. 다윗은 그 창을 들어 사울에게 다시 던지지도, 말로 받아치지도 않고 조용히 떠났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삶에 어둠이 밀려들어왔음을 명확히 볼 수 있는 표시였다. 이후 그는 다윗에게 또 한번 창을 던졌다 (19:10).

- C. The Lord was with David and had departed from Saul. Saul removed David from his position in the royal court and demoted him to a position in the army that he might be killed in battle (18:12-13).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사울을 떠나셨다. 사울은 그가 왕궁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게 하고 전쟁 중에 죽을 수 있도록 군대로 자리를 옮기게 했다 (18:12-13).

¹²*Saul was afraid of David,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but had departed from Saul. ¹³Therefore Saul removed him from his presence, and made him his captain over a thousand; and he went out and came in before the people. (1 Sam. 18:12-13)*

¹²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¹³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삼상 18:12-13)

- D. **The Lord was with David:** The evidences of the Lord’s favor and presence were on David’s life.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의 삶에는 주님의 은총과 임재의 증거가 함께 했다.

- E. **The Lord departed from Saul:** Saul’s character gradually deteriorated. He went from being a national hero to a fearful, jealous, and depressed man, and then became an angry, murderous tyrant.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의 성품은 점차 더 나빠졌다. 국가적인 영웅이었던 그는 두려워하고, 질투심 많은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며, 그리고는 화를 내며 살인하는 폭군으로 변해버렸다.

- F. **Afraid:** When Saul saw David’s success, his fear that David might replace him as king increased (18:12, 15). Instead of looking on David with gratitude because of his helpful service, Saul was afraid of him. He once loved David greatly (16:21), but now it turned to hatred. The spear episode incited fear—not in David, but in Saul. Saul reasoned that the only way that David was able to evade his spear at such close range was that “the LORD was with David but had left Saul” (18:12).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보았을 때, 다윗이 자신을 대신할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18:12, 15). 사울은 자신에게 도움이 된 다윗의 섬김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켜보기보다,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한 때 다윗을 매우 사랑했지만 (16:21), 이제 이는 미움으로 변했다. 사울이 창을 던졌던 일은 다윗이 아닌 사울의 내면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8:12).

- G. **Saul removed David:** Saul wanted David out of royal court where he was gaining more favor. Saul did not repent; instead he fired David from his prestigious job in the royal court.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사울은 다윗이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고 있던 궁정을 떠나게 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윗을 왕궁의 특권의 자리에서 해고해버렸다.

- H. **Made him captain:** Saul wanted David to be exposed to the danger of battle against the Philistines. David was sen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ourt to lead the troops in battle. This new position posed risks for David’s reputation and well-being. If he was not successful on the battlefield, it would reduce his prestige and popularity and maybe even end his life. David’s God-given success in these military campaigns caused Saul to have more fear and David to have more favor in the nation.

천부장으로 삼으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했다. 다윗은 왕궁에서 보호받던 위치에서 전장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로 보내졌다. 이 새로운 자리는 다윗의 명성과 행복에 위협 요소가 되었다. 만일 그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는 그의 명예와 인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며, 어쩌면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에서 다윗에게 주신 성공으로 인해 사울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됐으며, 다윗은 나라 안에서 더 많은 호의를 얻게 됐다.

- I. **Leadership lesson:** To have confidence in God with patience if you are removed from your position in an unjust way, knowing that the Lord can bless you just as He blessed David in his new role.

리더십 강의: 당신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옮겨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위치에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음을 알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

- J. **Going out and coming in:** This speaks of functioning in leadership as a shepherd who helped God’s people overcome the enemies of God’s will in their life (Num. 27:17; 1 Sam. 8:20; 2 Sam. 5:24). It included the idea that David lived his life openly before them without pretense and hypocrisy.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민 27:17; 삼상 8:20; 삼하 5:24). 이는 다윗이 그들 앞에서 겉치레나 위선을 행하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갔음을 말한다.

VI. SAUL OFFERED HIS DAUGHTER MERAB TO DAVID (1 SAM. 18:17-19)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줌 (삼상 18:17-19)

- A. Saul launched deceptive schemes hoping they would lead to David’s death (18:17-30). For example, Saul offered his daughter Merab to David, but then gave her to another man in marriage that very day (18:17-19). This was meant to be a public (national) insult of David to stir up mutiny in his heart against the k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marriage included giving David status as king’s son-in-law and as part of the royal family.

사울은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만적인 계략을 시작했다 (18:17-30). 예를 들어 사울은 자신의 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줬지만, 같은 날에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켰다 (18:17-19). 이는 다윗에게 공개적인(국가적인) 모욕을 주고, 그의 마음에 왕을 향한 반역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결혼은 정치적으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됨으로 왕가에 속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¹⁷Saul said to David, “Here is my older daughter Merab; I will give her to you as a wife. Only be valiant for me, and fight the LORD’s battles.” For Saul thought, “Let my hand not be against him, but let the hand of the Philistines be against him.”¹⁸So David said to Saul, “Who am I, and what is my life or my father’s family in Israel, that I should be son-in-law to the king?”¹⁹But it happened at the time when Merab, Saul’s daughter, should have been given to David, that she was given to Adriel the Meholathite as a wife. (1 Sam. 18:17-19)

¹⁷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¹⁸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¹⁹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삼상 18:17-19)

- B. **Who am I:** David answered in humility for the honor of being in the royal family. He responded in gratitude and not anger. He could have said “I am the one Samuel anointed, the one who killed Goliath to save the nation, and the one who is loved by so many in Israel.” He asked, what is my life (rank in life), or my father’s family, being a rural shepherd with Moabite blood (Ruth 4:13-17).

내가 누구며: 다윗은 왕가에 속하게 되는 영예에 대해 겸손으로 대답했다. 그는 분노가 아닌 감사함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며, 골리앗을 죽여 이 나라를 구했고, 이스라엘의 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떠하며 (삶의 계급), 아버지의 가계가 어떠하며, 자신이 모압인의 피가 섞인 시골 목자일 뿐임을 말했다 (룻 4:13-17).

VII. DAVID MARRIED MICHAL (1 SAM. 18:20-27)

다윗이 미가엘과 결혼하다 (삼상 18:20-27)

- A. Saul offered him marriage to his youngest daughter Michal as another deceitful scheme (18:20-27) to kill David indirectly by demanding an outrageously high dowry for her—that he kill 100 Philistines. The offer of marriage to Michal was Saul’s third means of seeking to kill David.

사울은 다윗에게 또 다른 기만적인 계략으로 자신의 가장 어린 딸인 미갈과의 결혼을 제안했으며 (18:20-27), 말도 안되게 높은 지참금으로 100 명의 블레셋 인을 죽일 것을 요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미가엘과 결혼할 것에 대한 제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세 번째 시도였다.

²⁰Michal, Saul’s daughter, loved David. They told Saul, and the thing pleased him. ²¹Saul said, “I will give her to him, that she may be a snare to him, and that the hand of the Philistines may be against him.” Therefore Saul said to David a second time, “You shall be my son-in-law today.” ²²Saul commanded his servants, “Communicate with David secretly, and say, ‘Look, the king has delight in you...therefore, become the king’s son-in-law’”...²³David said, “Does it seem to you a light thing to be a king’s son-in-law, seeing I am a poor and lightly esteemed man?”...²⁵Saul said, “Thus you shall say to David: ‘The king does not desire any dowry but one hundred foreskins of the Philistines, to take vengeance on the king’s enemies.’” But Saul thought to make David fall by the hand of the Philistines... ²⁶it pleased David well to become the king’s son-in-law...²⁷David arose and went, he and his men, and killed two hundred men of the Philistines...
(1 Sam. 18:20-27)

²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²¹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울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²²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²³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 ²⁵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²⁶ ...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²⁷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 (삼상 18:20-27)

- B. **Dowry:** David was a poor man and thus unable to pay the bride price for a princess; only a wealthy man could afford to pay the high dowry price that a king’s daughter would require. Saul set the price in the form of service instead of money, requiring David to engage in dangerous military exploits with the hope that the Philistines would kill him.

지참금: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공주를 얻을 만한 신부 값을 지불할 형편이 못 되었다. 부유한 사람이나 되어 왕의 딸이 요구하는 높은 지참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었다. 사울은 돈 대신에 일련의 일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다윗이 위험한 군사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그가 블레셋 인들의 손에 죽기를 바랐다.

- C. **Humility:** To both marriage offers David responded with humility (18:18, 23). David did not think that he deserved the privileges and honor that he received from God and people. His humility was expressed in truly believing that he was not worthy to be a part of the royal family in the nation that was in covenant with the Lord. He understood Israel’s role in God’s eyes.

겸손: 두 번의 결혼 제안에 대해 다윗은 모두 겸손하게 응답했다 (18:18, 23).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명예와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겸손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왕가의 일부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 D. **Gratitude:** David refused to be offended, but responded in gratitude, not anger, at being put in a position that required him to risk his life and having been publically insulted by Saul refusing to give him his first daughter in marriage. Again, David could have said, “I am the one Samuel anointed and who killed Goliath to save the nation, etc.” But David did not give any signs that he thought that Saul’s demands for this dowry were either dangerous or demeaning.

감사: 다윗은 사울이 첫째 딸을 자신에게 주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음에도,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도 분노가 아닌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실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한 번,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이고, 골리앗을 죽여 이 나라를 구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요구하는 이 지참금은 위험하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표시도 내지 않았다.

²³**David said, “Does it seem to you a light thing to be a king’s son-in-law, seeing I am a poor and lightly esteemed man?” (1 Sam. 18:23)**

²³ ...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삼상 18:23)

- E. One who is humble does not feel they deserve more honor. When being passed over for a promotion, it seems natural and reasonable to insist on being honored and to think that we deserve more honor than we received. However, they are gifts of God that no one deserves in reality, so we should hold them lightly without thinking we deserve it. That is foundation of humility.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은 명예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게 될 때, 더 많은 명예를 요구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명예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³**I say...to everyone who is among you, not to think of himself more highly than he ought to think, but to think soberly, as God has dealt to each one a measure of faith. (Rom. 12:3)**

³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2:3)

- F. Saul’s fear and hatred for David grew with each evil deed that he did against David. His fear was heightened because he knew both the Lord and the people favored David (18:28-30). David was immortal until he completed God’s plan for his life. We can’t die until we complete the will of God.

사울의 다윗을 향한 두려움과 미움은 그가 다윗에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더욱 커져갔다. 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를 알았기에, 그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18:28-30). 다윗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²⁸**Saul saw and knew that the LORD was with David, and that Michal...loved him; ²⁹and Saul was still more afraid of David. So Saul became David’s enemy continually. ³⁰Then the princes of the**

Philistines went out to war. And so it was, whenever they went out, that David behaved more wisely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so that his name became highly esteemed. (1 Sam. 18:28-30)

²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²⁹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³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삼상 18:28-30)

- G. ***Enemy continually***: Saul was a serious enemy against David the rest of Saul's days (18:29). Saul became his enemy continually, which eventually led him to seek to kill David directly (19:1).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18:29). 사울은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었으며, 결국 그는 다윗을 직접 죽이고자 했다 (19:1).

- H. ***Highly esteemed***: David's actions and attitude resulted in his name being esteemed, the opposite of what Saul wanted to happen. It backfired on Saul. David was not killed by the Philistines, but rather gained more honor in the nation, even as Saul sought to destroy his life and honor. God overruled the anger of Saul and the Philistines, causing it to contribute to God's plan for David.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그는 존경받는 자가 되었으며, 이는 사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이는 사울에게 역효과였다. 다윗은 블레셋 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으며, 사울이 그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자 함에도 오히려 나라에서 더욱 존경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블레셋인들의 분노를 거꾸로 사용하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다.

¹⁰ Surely the wrath of man shall praise You [God overrules it to full His purpose]... (Ps. 76:10)

¹⁰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무효로 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심] ... (시 76:0)

- I. ***Behaved wisely***: David behaved wisely and was successful in promotion and adversity. To behave wisely included being more successful than any of Saul's other officers. He did not take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any way. He did not bully, manipulate, or promote himself in his new position or with information to which he had access. He did not threaten people who did not embrace what he wanted. David did not tell others about how badly Saul was treating him. He acted wisely related to holding his speech. (16:18 prudent of speech). David had many stories against Saul, but did not use them to undermine him. Saul broke his promises to him, but David did not speak of them to others.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으며, 지위가 높아지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성공적일 수가 있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사울의 다른 어떤 신하들보다 성공적이 되는 것도 포함했는데, 그는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 얻게 된 자리에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조종하지도,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으며,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얼마나 나쁘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언변을 신중하게 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했다 (16:18, 구변이 있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할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해서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